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분석

- 시진핑의 국가 대전략과 외교정책 -

이진복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정치학 박사)

김은옥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2017. 11.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분석

- 시진핑의 국가 대전략과 외교정책 -

이 진 복(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정치학 박사)

김 은 옥(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시진핑의 국가 대전략 -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종합보고 분석

이진복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정치학 박사)

I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1
	1. 당대회 개요	1
	2. 새로운 당헌	3
	3. 중국공산당 새 지도부	4
II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4
	1. 시진핑 : 신시대의 설계사	5
	2. 신시대 : 아름다운 생활	6
	3. 중국의 꿈 : 현대화 강국	10
III	신시대 정책방향	13
	1. 경제 : 현대화 경제체제	14
	2. 외교 : 평화적 발전의 길	17
	3. 정치 : 의법치국, 종엄치당	18

목 차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분석: 외교정책적 함의

김은옥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I	외교정책 기조	21
II	주요 내용	24
	1. 신형국제관계	24
	2. 인류운명공동체	26
	3. 강군의 꿈 실현	27
III	외교정책적 함의와 전망	28
	1. 시진핑 2기 외교정책 방향	28
	2. 미중관계	30
	3. 한중관계	31
IV	대중 외교전략	32

시진핑의 국가 대전략

-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종합보고 분석

이 진 복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정치학 박사)

I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1. 당대회 개요

-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는 2017년 10월 18일 ~ 24일 개최되어 전국대표 2,280명, 특별 초청 대표 74명 등 2,354명이 초청되고 이 가운데 병가 등으로 16명이 불참하여 개회식에는 2,338명이 참석, 새로운 국가전략을 채택하고 새 지도부 선출¹⁾
- 시진핑(習近平)의 종합보고 제목은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자’
- 종합보고에서 시진핑은 대회의 주제를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심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가치를 높이 들고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분투하는 하는 것”으로 규정²⁾

1) 성균중국연구소.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종합보고>. 2017.10.26

2) 시진핑.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자 -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한 보고>. 신화사(한글 번역본). 2017.10.18. 이하 본문에서 별도의 인용표시가 없는 경우는 이를 인용한 것임

○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보고서

- 시진핑은 3만 여개의 단어, 68쪽 분량의 종합보고를 3시간 24분 동안 연설. 시진핑이 2050년에 중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가장 오랫동안 박수를 받았음
- 이 종합보고서는 ‘시진핑 브레인’으로 불리는 취칭산(曲青山) 중앙당사연구실 주임, 중공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의 양웨이민(楊偉民) 부주임, 가오쉬안민(高選民) 중앙조직부 부부장, 한진(韓俊) 중앙농촌공작 영도소조판공실 주임, 장진취안(江金權) 중앙기율위 검사조장 등이 10개월에 걸쳐 완성한 작품이라는 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CMP)³⁾
- 시진핑의 당대회 종합보고는 총 13개 장으로 구성
 - 1장, 지난 5년간의 사업과 역사적인 변혁에 대하여
 - 2장, 신시대 중국공산당의 역사적인 사명에 대하여
 - 3장,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과 기본방략에 대하여
 - 4장, 소강사회 전면 건설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새로운 노정을 시작할 데 대하여
 - 5장, 새로운 발전이념을 관철하여 현대화경제체계를 구축할 데 대하여
 - 6장,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에 대한 제도체계를 건전히 하고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킬 데 대하여
 - 7장,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가지고 사회주의 문화의 번영흥성을 추진할 데 대하여
 - 8장, 민생을 보장, 개선하는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할 데 대하여
 - 9장, 생태문명체제개혁을 가속화하여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할 데 대하여
 - 10장, 계속 중국특색의 강군의 길로 나아가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데 대하여
 - 11장, ‘한 나라, 두 제도’를 견지하고 조국통일을 추진할 데 대하여
 - 12장, 계속 평화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며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할 데 대하여
 - 13장, 확고부동하게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며 당의 집권능력과 지도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데 대하여

3) 문화일보. <中 당대회 보고서 ‘시진핑 브레인’ 5인이 썼다>. 2017.10.30

2. 새로운 당헌

-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에서는 당헌을 개정,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명기
- 당대회는 “당 전체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통일된 사상과 행동으로 삼아 학습과 관철의 자각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고,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전과정에 관철해 당 건설의 각계 분야에 구현하도록 당부했다.”
-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사상과 행동을 통일하며 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 일치의를 수립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의 권위와 통일된 리더십을 굳건히 지켜 당 내부 정치생활을 체계화한다”는 내용 등을 당헌에 명시
- 중국특색 사회주의 문화를 추가함으로써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장기간 견지하며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 시진핑은 당대회 종합보고에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행동지침으로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
- ‘당이 모든 것을 이끈다’는 내용이 추가됨으로서 공산당 독재체제 강화. “당정군민학(黨政軍民學) 그리고 동서남북중 가운데 당이 모든 것을 이끈다.”
-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의 꿈’ 명기. “대회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이 근대 이후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이며, 이를 인민과 역사에 대한 당의 엄숙한 약속으로 보고, 당헌에 ‘두 개의 100년’ 분투 목표 실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의 꿈 실현에 대한 장엄한 목표 명시에 동의했다.”
- 시진핑 브랜드를 대거 당헌에 명시. 공급측면 구조개혁, 인류운명공동체, 일대일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 반부패 투쟁 확대, 전면 중엄치당 (從嚴治黨, 당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 등 명기⁴⁾

4) 인민일보. <19차 당대회 당헌 개정안 집중 살펴보기>. 2017.10.27

3. 중국공산당 새 지도부

- 기존 집단지도체제는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 2016년 10월 18기 6중전회에서 시진핑에게 ‘핵심’ 칭호를 부여한 것을 실질화
- 당대회에서 정치국 25명 가운데 15명,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5인을 교체. 새로운 상무위원 가운데 리잔수(栗戰書), 왕양(汪洋), 자오러지(趙樂際) 3인은 확실한 시진핑 측근 인사(習家軍). 7인중 시진핑 포함, 확실한 시진핑계가 과반수인 4인을 차지
- 특히 차세대 유력 지도자 후보였던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서기가 탈락. 현 지도자가 차기 지도자를 선정할 수 없다는 ‘격대지정(隔代指定)’의 관행 파괴. 시진핑의 3연임 가능성조차 운위되는 실정
-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책임제를 시행함으로써 시진핑의 군장악력 확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의 수를 11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시진핑 측근들로 대거 채웠을 뿐 아니라 중앙군사위 부주석급 인사들의 낙마, 퇴임으로 시주석의 권위 강화⁵⁾

II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의 특징
- 시진핑은 당대회 보고에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기존 지도이념의 계승, 발전이고 최신성과이자 결정체이며 행동지침으로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나아가야 함을 강조
 -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사상, 덩샤오핑(鄧小平)이론, 3개 대표론, 과학적발전관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며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최신성과이며 당과 인민의 실천적 경험과 집단적 지혜의

5) 김진호 외.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민주연구원 토론회 자료집, 2017.11.1

결정체이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이론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전당과 전국 인민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지침으로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 사실 ‘중국특색 사회주의’는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서 전혀 새로운 것은 없음
- 여기서 새로운 것은 ‘시진핑’, ‘신시대’이고 이를 대중화한 ‘중국의 꿈’임

1. 시진핑 : 신시대의 설계사

-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공산당의 당헌에 명기됨으로써 시진핑은 5년 단위의 ‘기’ 또는 10년 단위의 ‘세대’를 넘어 마오쩌둥과 동격의 ‘신시대의 설계사’로 위상이 격상
- 중국공산당의 당헌에 명기된 지도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 3개 대표론, 과학적발전관으로 주의 → 사상 → 이론 → 관의 순서. 시진핑의 ‘이론’이 아니라 ‘사상’으로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마오쩌둥과 동격
- 자신의 이름이 명기된 중국공산당 지도자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이어 3번째이고 더욱이 생전에 이름이 당헌에 명기된 지도자는 마오쩌둥에 이어 시진핑이 처음
- ‘신시대’의 사상을 자처한다는 점에서 5년 단위의 공산당 당대회와 ‘기’와 1세대 마오쩌둥, 2세대 덩샤오핑, 3세대 장쩌민(江澤民), 4세대 후진타오(胡錦濤), 5세대 시진핑의 ‘세대’를 넘어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은 30년 이상의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로 부각
- 시진핑의 신시대 사상을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에 이은 제3의 혁신적 사상으로 평가”하고, 인민일보가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에 이어 시진핑을 개혁개방의 ‘새 설계사’로 칭했다는 점에서, 또한 2050년까지 신시대 중국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진핑은 ‘신시대의 설계사’로 간주될 수 있음⁶⁾

2. 신시대 : 아름다운 생활

- 시진핑은 '신시대'를 주요 사회모순의 전환과 연관시켜 규정. 신시대의 주요 사회모순을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으로 규정
- 구시대가 '양적 성장'의 시대라면 신시대는 '질적 발전'의 시대.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온포사회'와 '기초적 소강사회'를 넘어 '아름다운 생활'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는 '전면적 소강사회'와 '아름다운 중국'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이 '신시대'임을 주창
- '신시대'는 경제성장 우선시대가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시대, '5위 일체'의 시대임을 역설
- 시진핑은 '신시대'를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 시대, 소강사회 전면 실현 시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전면 건설 시대, 공동부유 실현 시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 시대, 중국의 세계무대, 인류를 위한 더욱 크게 기여하는 시대로 규정

○ 시진핑의 '신시대' 정의

- “신시대는 선인들의 위업을 이어받아 앞날을 개척하고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계속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시대이며,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나아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시대이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단합 분투하여 끊임없이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며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시대이며 전체 중화의 아들딸들이 일심협력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시대이며 우리나라가 날로 세계무대의 한복판으로 다가가며 인류를 위하여 끊임없이 더욱 큰 기여를 하는 시대입니다.”
-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모순도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사이의 모순으로 전환되었습니다.”

6) 중앙일보. <덩샤오핑에게 불던 '총설계사' 호칭을 시진핑에게 붙인 베이징 서기>. 2017.10.20.
연합뉴스. <인민일보 "시진핑은 개혁개방의 '새로운 총설계사'">. 2017.10.20

- “우리나라는 10여 억 인구의 먹고 입는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고 총체적으로 소강생활수준에 이르렀으며 머지않아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가 날로 확대되면서 물질문화생활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민주, 법치, 공평, 정의, 안전, 환경 등 방면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 “우리는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시키는데 기초하여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문제를 힘써 잘 해결하고 발전의 질과 효익을 힘써 향상시켜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등 방면에서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보다 잘 충족시키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보다 잘 추진시켜야 합니다.”

(표1) 시진핑의 ‘신시대’ 비전

구 분	구시대		신시대	
덩샤오핑 3단계 발전	온 포	소 강		대 동
시진핑 신시대 3단계 발전		기본적 소강사회	전면적 소강사회	기본적 현대화
두개의 100년			당 창건 100주년 2020년	2035년 신중국 창건 100주년 2050년

- 시진핑의 ‘신시대’ 비전은 덩샤오핑의 온포(溫飽), 소강(小康), 대동(大同)의 3보주(三步走), 즉 3단계 발전론을 계승, 구체화. 소강사회 전면적 실현과 사회주의 현대화 전면적 실현을 ‘신시대’로 규정, 구체적 일정을 제시
- 덩샤오핑은 3보주의 제1보는 1인당 국민소득이 80년의 두 배로 성장하여 500달러에 도달함으로써 빈곤에서 탈출하는 ‘온포’이고, 제2보는 20세기 말까지 다시 두 배로 성장하여 1,000달러를 달성, 괜찮은 생활수준에 도달하는 ‘소강’이고, 다시 30년 내지 50년 걸려 4,000달러를 달성하여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대동’임

○ 덩샤오핑 ‘3보주’ 전략의 구체적 내용

- “우리의 원래 목표는 제1보가 80년에 두 배로 성장하는 것이다. 1980년을 기수로 하여 당시 1인당 국민생산총액은 고작 250달러이었던 것이 두 배로 성장하여 500달러에 도달했다. 제2보는 금세기 말까지 다시 두 배로 성장하여 1인당 평균 1,000달러에 도달하는 것이다.”

- “이 목표의 실현은 우리가 소강사회로 진입하고 빈곤의 중국을 소강의 중국으로 변형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그때가 되면 국민생산총액이 1조달러를 넘지만 1인당 평균은 아직 낮다. 그러나 국가의 역량은 어느정도 증대될 것이다.”
- “우리의 목표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제3보이다. 다음 세기에 30년 내지 50년에 걸쳐 다시 두 번 두배로 성장하면 대체로 1인당 평균이 4,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 일보를 달성하면 중국은 중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1987. 4. 30. 덩샤오핑)
- “우리 경제발전은 3보로 나누어 가는데 금세기에 2보 가서 온포와 소강에 이르고, 다음 세기에 30년 내지 50년 걸쳐 1보를 가서 중진국 수준에 도달한다.”(1987. 8. 29. 덩샤오핑)

○ 공자의 온포, 소강, 대동

- 덩샤오핑은 공자의 온포, 소강, 대동 개념을 활용, 중국특색 사회주의 형상화
- 시진핑은 2014년 공자탄신일(9월 28일) 2565주년을 맞아 공자 학술대회에 참가. 총회 개막사
- “중국공산당인들은 역사 허무주의자도 아니고 문화 허무주의자도 아닙니다. ... 중국공산당인들은 중국 인민을 이끌고 혁명과 건설,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종여일하게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충실한 계승자이자 홍양자(弘揚者)로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를 기울여 공부자(孔夫子)에서 쑨중산(孫中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흡수해야 할 것입니다.”
- “중국 인민은 지금 ‘두개의 100년’이라는 투쟁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이라는 목표에 나오는 ‘소강’은 예기 예운편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중화민족이 옛날부터 추구해오던 이상적인 사회상태를 말합니다. 소강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중국의 국가발전 목표를 확립한 것은 중국의 실제 상황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인민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 ‘온포’는 만백성이 등 따시고 배부른 사회를 말함. ‘소강’은 세습·사유제가 정착되고, 무력과 무용, 예법질서, 각자의 합당한 몫을 정하는 소의(小義), 가족을 챙기는 소인(小仁)이 중시되는 사회
- ‘대동’은 임금과 치자가 현자와 능력자 중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대인(大仁)과 대의(大義)의 원리에 따라 화목과 영구평화가 달성되고, 자기만 쓰는 사유와 반대로 기꺼이 남과 나눠 쓰는 개인 소유에 힘입어 완전고용과 보편복지가 실현된 신분 차별 없는 무계급 사회⁸⁾
- 시진핑은 덩샤오핑의 ‘대동’이 대중적 이해는 쉽지만 무계급 사회,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 사회주의 → 공산주의 3단계에서 공산주의 사회인 한에서 개념상 ‘사회주의 현대화’로 달리 규정함

- 1단계인 온포는 1980년대 말 이미 완료. 1990년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858달러로 등소평의 기준으로 보면 소강 수준. 2002년 장쩌민은 그해 열린 제16차 당대회에서 중국의 소강사회 진입을 공식 선언. 당시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000달러를 훌쩍 넘어선 상태. 2016년 현재,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000달러를 넘어서는 8,123달러로 덩샤오핑의 4,000달러를 2배 넘게 달성
- 시진핑은 ‘두개의 100년’에 근거, 공산당 창건 100주년(정확하게는 2021년)이 되는 2020년에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신중국 창건 100주년(정확하게는 2049년)이 되는 2050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할 것을 천명
- 즉, 첫 번째 100년인 공산당 창건 100주년, 2020년의 목표는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이고 두 번째 100년인 신중국 창건 100주년, 2050년의 목표는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임
- 2020년의 전면 소강사회는 빈곤에서 벗어난 덩샤오핑의 관창은 생활수준을 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이 충족되는 사회로 격상.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인민일보에서 소강사회를 ‘중산층사회’로 규정⁷⁾
- 시진핑은 덩샤오핑의 일부 사람이 먼저 부유해지는 ‘선부론(先富論)’을 넘어 모두가 함께 부유해지는 ‘공동부유론’ 강조
- “경제가 보다 발전되고 민주가 보다 건전하며 과학기술과 교육이 보다 진보되고 문화가 보다 번영하며 사회가 보다 조화롭고 인민생활이 보다 유족한 소강사회”
- 2035년에 기본적 사회주의 현대화가 실현되는데, 이는 ‘아름다운 중국’ 건설이라는 목표가 ‘기본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규정
- “그때가 되면 국가의 문화소프트파워도 뚜렷이 증강되고 중화문화도 보다 넓은 범위에서 깊이있게 영향력을 발휘하며 인민생활이 더욱 유족해지고 중등소득층의 비율이 뚜렷하게 높아지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이라는 목표가 기본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7) 산시우파, 왕샤오웨이 지음, 손상하 옮김. 【등소평과 21세기 중국의 전략】. 유스북. 2005.

8) 박승준. <시진핑이 이례적으로 공자 학술대회 참석한 이유>. 주간조선. 2014.9.29. 황태연. <왜 지금 다시 공자인가>. 동아일보. 2012.12.8

9) 인민일보. <중앙당교 교수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새 시대’ 심층 해부>. 2017.10.27

- ‘아름다운 삶’의 요구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이 신시대의 주요사회 모순이고 ‘아름다운 사회’의 실현이 신시대의 핵심과제인데, 이를 실현한 ‘아름다운 중국’의 전면적 건설이 바로 2050년에 실현될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는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이 전면적으로 향상되고 국가관리체계와 국가관리능력의 현대화가 실현될 것입니다.”
- 따라서 현시기는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결승단계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들어선 관건 시기”로서 시진핑 집권 2기(2017년 ~ 2021년)는 “‘두 개의 100년’이라는 분투목표가 역사적으로 겹쳐지는 시기”임

3 중국의 꿈 : 현대화 강국

- 시진핑은 ‘중국의 꿈’을 통해 신시대를 대중화. ‘중국의 꿈’을 ‘중화민족의 부흥’으로 규정하면서 ‘현대화 강국’의 비전을 제시
- 인민일보는 중국의 꿈을 ‘일어서기’, ‘부유해지기’에 이은 ‘강해지기’로 규정. 마오쩌둥의 ‘일어서기’, 덩샤오핑을 필두로 한 장쩌민, 후진타오의 ‘부유해지기’에 이은 시진핑의 ‘강해지기’를 ‘중국의 꿈’으로 구체화¹⁰⁾
- 시진핑이 중국특색 사회주의 노선, 이론, 제도, 문화에 대한 ‘4개 자신감’을 역설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이 “개발도상국이 현대화에도 나아가는 길”을 넓혀주는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제공하는 “중국의 방안”임을 자랑하는 것 역시 ‘중국의 꿈’

10) 인민일보 사설. <역사의 장면은 늘 분발 전진하는 과정에서 펼쳐졌고, 시대의 시문은 늘 새로운 분투 속에서 써졌다>. 2017.10.18

(표2) 시진핑의 '중국의 꿈' 비전

신시대	전면적 소강사회	기본적 현대화	전면적 현대화
국가상		일류 혁신형 국가	G1
군사력	전군의 기계화	기본적 국방과 군대 현대화	세계 일류군대

- 시진핑은 '중국의 꿈'을 '두 개의 100년' 목표인 전면적 소강사회와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으로 설명

○ 시진핑의 '중국의 꿈' 연설

- '중국의 꿈'은 시진핑이 공산당 총서기가 되자마자 제시. 2012년 18차 당대회가 폐막된 다음날인 11월 15일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 회의에서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은 11월 29일 6인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모두 대동하고 '중흥의 길'이라는 특별 전시회를 관람. 여기서 시진핑은 '중국의 꿈' 연설
- "각 개인은 이상과 추구하는 바가 있고 모두 자기의 꿈이 있습니다. 현재 모두들 중국의 꿈에 대해 토론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실현하는 것이 근대 이래 가장 위대한 꿈입니다."
- "나는 굳게 믿습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에 소강사회 완성이라는 목표가 꼭 실현될 것입니다. 중국 건국 100주년(2049년)에는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된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라는 목표가 실현되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의 꿈이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¹¹⁾

- 이어서 '중국의 꿈'을 '중화민족의 부흥'으로 규정함으로써 중국이 추구해야할 대외적 국가상으로 확장
- 아편전쟁이 발발한 1840년에서 사회주의 신중국이 건설된 1949년까지 첫 번째 100년의 기간을 '중국의 치욕'으로 규정하면서 신중국 건설 100주년이 되는 두 번째 100년의 때,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과 함께 '중국의 꿈'이 실현되는 것으로 설정
- 기본적 현대화가 완성되는 2035년의 중국의 국가상을 '일류 혁신형 국가'로 규정. 기본적 사회주의 현대화가 실현되면 "우리나라는 경제실력과 과학기술 실력이 대폭 상승하여 혁신형 국가의 앞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11) 조영남. 《중국의 꿈 -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민음사. 2013.

- 신중국 건설 100주년인 2050년에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은 “부강하고 민주주의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 되면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G1에 등극할 수 있음을 과시. “그때가 되면 종합적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의 앞자리를 차지하는 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 덩샤오핑의 3보주 전략에서 마지막 3보의 목표가 중진국이었던 시진핑의 ‘중국의 꿈’ 3단계 발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세계 최강국이며, 2단계의 완성, 전면적 소강사회 진입이 중진국이라는 점에서 결정적 차이

○ 중국의 경제력 예측

- 리다오쿠이(李稻葵) 청화대학 교수는 중국건강고위급포럼(2015. 5. 17)에서 “2021년(전면적 소강사회 실현 시기)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의 27%, 2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 구매력 평가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의 19%이며, 중국 인구가 미국의 4배인 점을 감안하면 2021년 중국 경제 규모는 미국의 1.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
- 2050년(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전면 실현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비관적인 가설로, ‘남미식 모델’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의 37%, 경제 총량은 미국의 1.5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
-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있는 가설로, 동아시아식 발전 목표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의 75%, 경제 총량은 미국의 3배에 이를 것”이라고 밝힘¹²⁾
- 제조업생산에서 2010년 이미 미국(19.4%)은 중국(19.8%)에 밀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탈환했음. 골드만삭스(2005)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경(전면적 소강사회 실현 시기) 중국은 EU와 미국을 앞질러 세계 1위로 올라 설 것으로 전망

- 중국의 꿈을 뒷받침하는 군사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면적 소강사회가 실현되는 2020년에 전군의 기계화가 기본적으로 실현
- “2020년에 이르러 기계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되고 정보화건설에서 중대한 진전이 이룩되며 전략능력이 크게 향상되도록 확보하여야 합니다.”

12) 중국증권망. 〈중국, 2050년에는 미국 GDP 3배 달성할 것〉. 2015.05.19

- 2035년, 기본적 현대화가 이루어진 일류 혁신형 국가에서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되고 2050년, 전면적 현대화가 실현되어 중국이 G1이 된 시점에 '세계 일류군대'를 전면적으로 건설
- “국가의 현대화 발전행정과 더불어 군사이론의 현대화, 군대조직 형태의 현대화, 군사인원의 현대화, 무장장비의 현대화 행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2035년에 이르러 국방과 군대 현대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되고 본 세기 중엽에 이르러 인민군대가 세계 일류군대로 전면적으로 건설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III 신시대 정책방향

-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기본방략
 - 시진핑은 기존 '4개 전면(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개혁심화, 의법치국依法治國, 종엄치당)'을 당대회 종합보고에서는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14개 '기본방략'으로 구체화
 1. 모든 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 견지
 2.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
 3.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견지
 4. 새로운 발전이념을 견지
 5.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를 견지
 6. 의법치국의 전면적인 실시를 견지
 7. 사회주의 핵심가치체계를 견지
 8. 발전과정에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지
 9.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견지
 10.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견지
 11.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영도를 견지
 12. 일국양제(한 나라, 두 제도)를 견지하고 조국통일을 추진
 13.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견지
 14. 종엄치당을 견지

○ '4개의 함정'

- 시진핑의 신시대 정책방향은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부딪치는 '4개의 함정'에 대한 해결방향
- '4개의 함정'은 첫째,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 둘째, 투키디데스(Thucydides Trap) 함정, 셋째, 타키투스(Tacitus Trap) 함정, 넷째, 서양화와 분열화(西化, 分化)의 함정임
- 첫째, '중진국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중간소득국가에서 성장력을 상실하여 고소득 국가에 이르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다시 저소득국가로 후퇴하는 현상
- 둘째, '투키디데스 함정'은 새로 굴기하는 신흥대국은 필연적으로 기존대국에 도전하기 때문에 기존대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 파국이 야기되는 현상. 고대 아테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레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을 굴기하고 있는 아테네를 두려워한 스파르타의 침공으로 설명
- 셋째, '타키투스 함정'은 로마의 집정관 타키투스가 한 말로 정부가 한번 신뢰를 잃으면 '콩으로 메주를 쏜다'해도 민중들은 곧이듣지 않는다는 것. 시진핑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타키투스 함정으로 민중에 대한 신뢰를 얻기는 매우 어렵지만 훼손되기는 매우 쉽다는 점
- 넷째, 서양화와 분열화의 함정은 소득이 높아지고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민중들이 서구식 민주화를 요구,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가 와해될 수 있는 위험¹³⁾

1. 경제 : 현대화 경제체제

- 시진핑은 경제적 측면에서 신시대를 양적 성장단계에서 질적 성장단계로 성장방식을 전환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현대화 경제체제'를 전략적 목표로 규정
-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고속성장단계에서 질적 성장단계로의 전환을 실현하고 성장방식을 전변시키고 경제구조를 최적화하며 성장동력을 전환하는 난관돌파기로 진입하였는바 현대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난관을 넘기는데서 절박한 요구로 우리나라 발전의 전략적 목표로 나섰습니다."

13) 강병환. <두 개의 백년'과 중국이 직면한 함정>. KNS. 2016.05.16

- ‘현대화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생산력의 해방이자 발전이고, 이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임을 강조. “사회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입니다. 우리는 온 사회의 창조력과 발전활력을 불러일으켜 질적 수준이 더욱 높고 더욱 효율적이고 더욱 공평하고 더욱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시진핑은 ‘두 개의 100년’이라는 목표,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발전’을 ‘집권홍국의 최우선 과업’으로 제시
- 이는 주요 사회모순의 변화와 무관하게 중국의 사회주의가 처해있는 역사 단계, 현재는 물론 장기간 중국이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을 것이라는 기본국정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전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는 국제적 지위도 변화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
- 현대화 경제체제는 혁신을 통한 발전이고, 혁신은 현대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전략적 지주. “혁신은 발전을 선도하는 제1 동력이며 현대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전략적 지주입니다.”
- 현대화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신시대 경제전략의 첫 번째는 ‘공급측면 구조개혁’, 두 번째는 ‘혁신형 국가’. 이는 성장동력의 부족과 경제전환의 실패에서 비롯된 ‘중진국 함정’에 빠지기 않기 위한 신시대 경제전략

○ 현대화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경제전략

- 시진핑은 종합보고에서 공급측면 구조개혁과 혁신형 국가 이외에 농촌진흥전략, 지역발전전략,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보완, 전면적 개방을 포함하는 6대 경제전략 제시
- 공동부유를 위한 농촌진흥전략과 지역발전전략과 함께 “재산권소유자에 대한 효과적인 격려,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격변동의 탄력성, 경쟁의 공평성과 유질서, 기업의 우승열패를 보장”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보완
- “일대일로 건설을 중점으로 대내유치와 대외진출 병행”하며 “우리나라 경내에서 등록한 모든 기업은 동일시하여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전면적으로 개방된 무역강국 건설”

- 현대화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혁신력과 경쟁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질적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고위로 진화하도록 촉진하는 ‘공급측면 구조개혁’을 심화할 것을 제시

- “실물경제, 과학기술혁신, 현대금융, 인력자원이 협동 발전하는 산업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시장경제가 효과적이고 미시적 주체가 활기를 띠고 적정 거시적 조정이 가능한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의 혁신력과 경쟁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합니다.”
- “현대화 경제체제를 구축하려면 반드시 경제발전의 주안점을 실물경제에 두고 공급체계 질적 수준의 향상을 주공방향으로 삼고 우리나라 경제의 질적 우세를 현저히 강화하여야 합니다.”
- 시진핑은 공급측면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가정신’을 강조하고 혁신과 창업을 장려할 것을 강조. “기업가정신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보호 하며 더욱 많은 사회주체가 혁신과 창업에 투신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 ‘현대화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두 번째 경제전략, ‘혁신형 국가’를 서둘러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전략적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시
- 이를 위해 첫째, 과학기술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기업을 주체로 하고 시장을 방향으로 하여 산학연이 심층적으로 융합된 기술혁신체제를 구축
- 둘째, 중소기업의 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과학기술성과의 상용화를 촉진
- 셋째, 혁신문화를 창도하고 지적재산권의 창조, 보호, 운용을 강화
- 넷째, 국제수준을 갖춘 전략적 과학기술인재, 과학기술선도인재, 청년과학 기술인재와 수준 높은 혁신단체를 대거 육성

○ 13.5 계획

- 13.5계획, 즉 13차 5개년 계획은 2016년부터 시작하여 중국의 첫 번째 ‘100년의 꿈’이 이루어질 2020년까지의 계획으로 시진핑 2기의 경제청사진
- 13.5 계획의 핵심 특징은 혁신을 통한 국가개조, 정보강국 건설. 시진핑이 전임 후진타오와 경제운영에서 확연히 다른 차별화는 바로 제조경제서 정보경제로 전환하는 것
- 중국은 인터넷+, 대중창업 만인혁신, 중국제조 2025의 정책 제시. 세계 최대의 모바일, 인터넷 대국민 중국의 정보강국 전환을 천명. 제조경제에서 인터넷과 고속철도, 금융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 플랫폼 경제로 전환이 13.5 계획의 가장 중요한 변화

- 시진핑은 중국의 경제를 30년 수요관리경제에서 공급혁신경제로 전환.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으로 외부로부터 유효수요를 늘리는 수요관리 중심의 '핑(平)'을 통해 중국을 G2로 만들었다면,
- 시진핑은 공급측면 혁신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공급혁신 중심의 '핑(平)'을 통해 G1의 중국의 꿈을 실현하려 함¹⁴⁾

2. 외교 : 평화적 발전의 길

- 시진핑은 신시대 “중국특색의 대국외교는 신형 국제관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
- 5년 전, 18차 당대회의 외교목표인 ‘신형 대국관계’가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G2 지위로 올라선 것에 대한 공인을 목적으로 했다면, 신시대 중국 외교의 강조점은 ‘대국외교’를 주어로 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G2 지위를 전제하고 ‘신형 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과제로 제시
- 시진핑이 2050년에 종합적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만이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중국을 세계최강국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꿈’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강대국의 방해라는 ‘투키디데스 함정’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것이 중국 신시대 외교의 기본방향
- ‘중화부흥’과 함께 ‘강한 중국’을 평화에 대한 위협 또는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신황화론(新黃禍論)’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국 신시대 외교의 제1과제
- 따라서 시진핑은 “중국은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가치를 높이 들고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외교정책의 취지를 엄격히 지키고 확고부동하게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을 토대로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력을 발전시킬 것이며 상호 존중과 공평과 정의, 협력과 상생에 기초한 신형 국제관계의 구축을 추진”할 것을 선언

14) 전병서. 《중국 100년의 꿈, 한국 10년의 부》. 참돌. 2016.

- 여기서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은 영토 분쟁 중인 인도, 미얀마와 공동 선언했던 주권과 영유권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임
- ‘중화부흥’은 평화적 발전의 길을 걷는 ‘화평굴기(和平崛起)’임을 다시 한번 확인. “중국의 발전은 그 어떤 나라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어떤 수준으로 발전하든지 영원히 패권을 잡지 않고 영원히 확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인류운명공동체’는 ‘책임감이 있는 대국’으로서 역할을 하는 중국의 자신감을 표현할 뿐 아니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와 고립주의에 대한 비판을 함의
- “그 어떤 나라도 혼자 힘으로 인류가 직면한 온갖 도전에 대응할 수 없으며 그 어떤 나라도 자기봉쇄라는 무인도에서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여기서 ‘그 어떤 나라’는 미국을 강력하게 암시
- 중국의 ‘평화적 발전의 길’은 중국의 국익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주지할 필요. “중국은 절대 타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자신의 정당한 권익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꿈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평화적 발전의 길’보다 먼저 ‘강군의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 유의. 외교 항목에서 “중국은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고수할 것”이지만 국방 항목에서는 “군대의 모든 사업은 전투력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싸울 줄 알고 싸워서 이기는데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

3. 정치 : 의법치국, 종엄치당

- 시진핑은 공산당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자신을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제1 기본방향이 “모든 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것임

- “당은 당정군민학을 망라한 모든 부분과 분야의 사업을 영도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 일치의를 강화하고 당중앙의 군위와 중앙집권적 통일영도를 자각적으로 수호하고 사상, 정치, 행동 면에서 자각적으로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시대와 역주행하는 공산당 독재체제의 강화는 ‘의법치국’을 위한 것이고, 당중앙에 대한 절대 복종은 ‘종엄치당’을 위한 것으로 설명
- 이는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타키투스의 함정’과 소득이 높아지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서양화와 분열화의 함정’에 대한 중국특색의 대처법
- 시진핑은 공산당 독재체제를 ‘사회주의 민주정치’로 규정하면서 보편적 민주주의를 ‘외국의 정치제도 모델’로 격하. 독재체제를 지속할 것을 선언
- “정치제도는 특정된 사회정치적 조건과 역사 문화적 전통을 떠나 추상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모종의 정치제도를 유일한 정치제도로 간주 해서도 안 되며 외국의 정치제도 모델을 그대로 옮겨놓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 엄격한 법치를 의미하는 의법치국은 공산당 독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이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
- “당의 영도는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와 의법치국의 근본적인 담보이고, 의법치국은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인민대중들로 하여금 모든 사법사건의 처리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종엄치당은 공산당이 직면한 정신해이의 위험, 능력부족의 위험, 대중이탈의 위험, 부정부패의 위험에 대한 대처법
- 이를 위해 “전당이 중앙에 복종하도록 보장하고 당중앙의 권위와 중앙집권적 통일영도를 견지하는 것을 당의 정치건설의 최우선 과업”으로 삼고,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으로 전당을 무장”할 것을 요구

- 특히 부패를 중국공산당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공산당과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부패척결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다짐
- “인민대중은 부패현상을 가장 증오하며 부패는 우리 당 앞에 나선 최대의 위협입니다. 부패척결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려는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간부의 청렴공정과 정부의 청렴결백, 정치의 청렴투명을 보장하여야만 당과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분석: 외교정책적 함의

김 은 옥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I 외교정책 기조

-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시진핑 주석은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제시하며 '중국의 꿈' 실현을 강조함
- 시진핑 주석은 집권 2기 정당성의 원천을 '신시대'와 '신사상' 담론을 통한 강력한 리더십의 확보로 표출함으로써 공산당 체제 강화의 필요성을 설득
 -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을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목표로 제시함
 - 시진핑은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대내적으로 경제발전과 정치·사회적 안정, 대외적으로는 외교·안보 분야의 영향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
- 외교분야에서 제시된 '신시대 중국 특색 대국외교'는 신형국제관계를 구축해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으로 요약됨
-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은 세계평화 수호 및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외교정책 기조 하에 평화공존 5원칙에 기초해 신형국제관계를 추진하고 각국 인민과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한다고 밝히고 있음
 - 시진핑주석은 '신시대'란 "중화민족의 위대한 꿈을, 부흥을 실현하는 시대이며,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서 인류를 위해 끊임없이 공헌하는 시대"라고 역설함
- 시진핑은 자신의 '신사상' 추진을 위해 14개의 기본방침을 제시하면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추진을 유지해야 한다. 중국 인민의 꿈과 각국 인민의 꿈은 의기투합할 수 있다. 중국의 꿈은 평화적인 국제환경과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밝힘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 19차 당대회 중앙국가기관 대표단 토론회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신시대”는 중국이 날로 세계무대의 중앙으로 나아가는 시대, 인류를 위해 부단히 공헌하는 시대라고 설명하면서 중국외교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하에 전 세계적 시각으로 국제적 책임을 더욱 자각하면서 보다 진취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밝힘
- 인류를 위한 ‘중국의 공헌’이란 일대일로와 전면 추진을 통해 전세계의 공동발전을 이끌고 친환경 발전경제 시스템을 건설함으로써 인류의 생태 문명을 건설하는데 기여하겠다는 것 등임¹⁾
- ‘신시대’의 중국은 세계 중심에서 인류에 많은 공헌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시진핑체제는 향후 책임대국의 역할 수행과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일 것
- 19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신형국제관계’는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함께 중국이 스스로 규범을 만들고 제도를 설계하는 행위자 역할을 하면서 국제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를 지니기도 함
- 시진핑 주석은 2015년 개최된 ‘18기 5중전회’에서 중국이 국제규범의 제정자 (rule maker)로서의 역할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바 있음
- 중국은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책임과 글로벌 거버넌스 역할 강화 의지를 피력하면서 미국과 차별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함
-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신고립주의 경향이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우회하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시킬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인식
- 다른 한편, 시진핑주석은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
- 시주석은 당대회 보고에서 “어떤 나라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며 “타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겠지만 자신의 정당한 권익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1) 성균중국연구소,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종합보고”(2017.10.26), p.12.

- 영토문제 등 중국의 핵심이익이 걸린 외교안보 사안에 있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임
- 중국정부는 주권 및 영토 보전을 핵심이익 즉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가적 이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014년 3월에도 시진핑주석은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국가 핵심이익을 희생하지 않는다”라고 천명한 바 있음
- 한편, 당대회 보고에서 시주석은 ‘일국양제를 유지하고 조국통일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한 바, 양안관계는 보다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음
- 외교안보 분야에서 19차 당대회 보고가 지니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18차 당대회 보고에서 ‘신형대국관계’가 강조되었던 반면 19차 당대회에서는 ‘신형국제관계’가 제시됨
- 18차 당대회 보고에서 후진타오주석은 미국 주도의 패권주의, 강권정치, 신간섭주의를 비판하는 가운데 “신형대국관계(새로운 강대국관계)²⁾ 건설”을 역설하면서 미국과 동등한 강대국으로서의 관계 형성을 통한 국제관계를 주장함
- 19차 당대회에서는 세계평화 수호 및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외교정책 기조 하에 상생협력의 신형국제관계 추진을 제시함으로써 국가간 조정과 협력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관계 구축을 강조
- 시진핑 1기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함으로써 주로 미국 등 강대국 관계를 중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강대국과의 마찰은 물론 주변국가들과의 갈등을 야기한 바, 그 대체제로 신형국제관계를 제시한 것으로 분석됨
- 18차 당대회 보고에서 해양자원의 개발확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강조된 ‘해양강국화’가 삭제됨³⁾

2) “신형대국관계”는 중국과 미국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상호존중하고 협력하자는 의미임. 과거 냉전시기 미소와 같은 적대적 관계가 아닌 ‘공존, 공영하는 강대국 관계’를 지향하자는 의미에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임.

3) 이동률,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민주연구원 토론회 자료집(2017.11.1) 참조

- 18차 보고에서는 해양 영유권 보호와 해양강국 건설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향후 중국은 해양, 우주 등의 군사력 증강에 중점을 둘 것을 주장한 바 있음
- 그러나 해양강국 구상은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격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발전전략으로서의 해양진출 추진이 어려움을 겪는 결과를 야기한 바, 19차 당대회에서 해양강국 대신 '일대일로 구상'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됨
- 세계 일류 '강군 건설'과 강력한 군 개혁 추진 의지가 강조됨
 -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우주·정보·사이버전, 민군 합동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2050년까지 최고 군대로 육성시키는 강군몽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밝힘
 - 지난 8월 인민대회당에서 거행된 건군 90주년 기념 대회연설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초심을 잊지 말로 계속 전진하여 흔들리지 않는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과 강군 사업에 매진하여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할 것을 강조한 바 있음
 - 강한 군대, 싸워서 이기는 군대에 대한 요구는 강국(強國) 실현에 부응하는 물리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지니며, 시진핑 주석은 이를 위해 군이 계속해서 당의 군대로 확실히 역할을 하는 군 개혁을 추진

II 주요 내용

1. 신형국제관계

- 신형국제관계의 제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함께 '미국과 서구 중심의 글로벌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중국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됨

-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세계평화 수호 및 공동발전 촉진의 외교정책 기조로 밝힌 신형국제관계는 ‘상호존중, 공평정의, 상생협력’이 핵심으로 제시됨
 - 시진핑주석은 “평화공존 5대 원칙을 토대로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진행해 신형국제관계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분쟁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 협상을 통한 갈등 해소, 전통과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강조
 - 또한 국가의 규모, 역량, 빈부에 상관없이 모두 평등하다고 지적하면서, 함께 상의하고 참여하고 누리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고수하며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님
- “신형국제관계”는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위상이 커지고 있는 중국이 협력과 공동 번영을 강조함으로써 미국과는 다른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
 -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대외행태는 주변국들로부터 강한 견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중국이 대외정책을 전개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음
 - 중국의 주변국들은 대중국 외적 균형(external balancing) 전략 차원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체제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은 이러한 견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주변국 외교가 필요한 상황
 - 또한 대소국과 평등한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공동이익 창출에 부합하는 역할을 추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존 강대국과의 차별성 부각
- 시진핑의 대외정책 중 주목할만한 구상으로 아시아는 물론 유럽까지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신실크로드인 ‘일대일로 정책’을 들 수 있음
 - 당대회 보고에서 시주석은 일대일로를 통해 국제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지를 표명
 - 시진핑은 일대일로 구상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는 가운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등을 통한 지역경제 통합을 추구해왔음

- 시진핑 2기 체제에서 일대일로 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2. 인류운명공동체

- 인류운명공동체는 ‘항구적 평화, 보편적 안전, 공동번영, 포용개방, 청결하고 아름다운 세계 등 5개 세계의 건설’을 의미
- 인류공동운명체의 강조는 자국 우선주의로 취임직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한 미국 트럼프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이자 미국과의 차별화를 의도하는 것으로 해석됨
 -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아태 자유 무역지대(FTAAP)’등을 통한 지역경제 통합을 추구해 옴
 - 시진핑은 국제사회가 테러리즘, 네트워크 안보, 기후변화 등의 위협에 직면에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친환경방침을 고수하고 기후변화에 함께 대응하여 인류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미국과의 차별적 이미지를 강조함
-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9월 왕이 외교부장은 ‘학습시보’ 기고문을 통해 “시진핑의 외교사상이 중국의 역사적 방향에 근거해 중국이 국제사회 중요 일원으로서 어떻게 세계 국제체계를 구축할지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음
 - 그는 시진핑 외교사상은 ‘주변국과의 운명공동체에서 아시아 운명공동체, 더 나아가 유엔이 제시한 인류 공동체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영구 평화, 보편적 안보, 공동 번영, 개방 포용의 세계를 전면적으로 건설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함

3. 강군의 꿈 실현

- 19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군사적 역량 강화를 통해 중국의 꿈, 강군의 꿈(強軍夢)을 실현할 것임’을 강조
- 시진핑은 ‘2035년까지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목표를 완성해 21세기 중반까지 중국 군대가 세계 최강의 수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임을 밝힘
 - 시진핑은 2012년 11월 공산당총서기에 오르고 2013년 3월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전임 후진타오 주석과 달리 국가주석 취임과 동시에 군권을 장악함
 - 이후 인적 및 제도적 군 쇄신을 추진하여 4년만인 올해 3월까지 군 편제를 대폭 개편하고 군에 대한 통제권을 확실히 장악함
 - 시진핑 1기 중국이 첨단무기 개발과 해군·공군전력의 강화에 주력하고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기지를 설치한 것 등은 ‘강군의 꿈’을 실현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보임
- 강화된 군내 위상을 바탕으로 시진핑 주석은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을 통해 군 현대화에 힘쓸 것을 강조
- 19차 당대회를 전후한 군 인사 등을 통해 볼 때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시진핑주석의 권위와 장악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시주석의 측근에 해당하는 ‘시자권’ 인사들의 인민해방군과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약진이 나타남⁴⁾
 - 강한 지도자로 회귀하는 중국은 2016년 10월 24일 폐막한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전체회의(6중전회)에서 ‘핵심’이라는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시사됨
-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의 기본 방침으로 ‘인민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가 강조됨

4) 반면 중국 인민해방군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상징성을 가진 ‘태자당’ 인사들이 19차 당대회 전국대표 명단에 들지 못하며 위상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임. 김한권,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민주연구원 토론회 자료집(2017.11.1) 참조.

- 당대회 보고에서 시진핑은 강군을 위한 역사적인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의 꿈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기적 군대개혁과 군사력 강화를 독려함
- 2017년 7월 건군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시진핑은 ‘당의 군에 대한 절대적 영도라는 기본 원칙과 제도를 견지해야 한다’면서 “영원히 당의 말을 듣고 당과 함께 가고, 당이 어디라고 지휘하면 그곳으로 진격해야 한다”고 강조
- 시진핑주석은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한 대외 영향력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과 군 전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전면적인 추진을 위한 군 개혁을 지속해나갈 것임

III 외교정책적 함의와 전망

1. 시진핑 2기 외교정책 방향

- 시진핑 2기는 큰 틀에서 기존 외교정책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중국의 꿈 실현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할 것
- 19대 기간은 2050년까지 중국의 꿈 실현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관건의 시기인 바, 중국은 안정적인 외부환경과 자국 주도의 국제질서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
- 시진핑의 비전인 강국의 꿈을 실행해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발전과 안정이 중요하며,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대외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지향할 가능성
- 중국은 국내적으로 사회 불만과 균열의 뿌리인 지역간·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성장신화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무엇보다 시진핑은 향후 5년 동안에 ‘중국몽’ 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느냐하는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음
- 우선적으로 악화된 주변정세를 개선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외교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것임
 -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강국화 추세에 따른 경계가 심화되는 가운데 영토분쟁 등 인접국가들과의 갈등도 고조되는 상황인 바, 역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위해 악화된 주변정세를 개선하려는 외교를 시도할 것
- 중국은 자국에 유리한 국제질서 형성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할 것
 - 시진핑 2기 중국은 평화협력적 대외전략 기조를 유지하되, 자국의 영향력 확대에 유리한 질서 형성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할 것
 - 시진핑이 ‘신형국제관계’를 제시함으로써 미국과 서구 중심의 글로벌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중국이 규범과 제도를 설계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음을 주지할 필요
 - 왕이 외교부장은 19차 당대회 직후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방안을 제시하고 더 좋은 사회제도를 모색하는 데 있어 중국의 지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아울러 중국은 2050년 사회주의 강국으로 부상하는데 중요한 원천인 현대화를 통한 ‘강군 건설과 군 개혁’도 강화할 것임
 - 핵심이익으로 표현되는 자국의 이해가 걸린 외교안보 현안에 있어서는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견지할 것임
 - 시주석은 당대회 보고에서 ‘어떤 나라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며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
 - 중국정부는 기본적으로 주권 및 영토 보전 등 핵심이익이 담보되어야 중국 경제나 중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공산당이 유지될 수

있다고 인식함

- 동시에 중국은 양자관계 접근을 통해 주변국을 중국측으로 끌어들이는 포섭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전망됨

2. 미중관계

- 시진핑 2기 미중관계는 전략적 협력과 경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일상화되는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우회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익과 직결된 현안에 있어 보다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임
 - 미국과 중국은 20년이상 정치경제적 관계에서 상호이해가 증가한 바, 미국 역시 중국에 대해 전면적 충돌 처방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임
 - 다만, 중국이 중국몽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의 행위를 견제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미중간 전략적 경쟁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연설통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2013년 쓴 책에서 “앞으로 10년 뒤엔 중국의 국력이 미국과 동급이 되어 양극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⁵⁾
 - 아울러 연교수는 ‘미중은 상호간 최대의 무역 상대국으로서 공멸의 결과를 낳게 될 전쟁은 서로 회피할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은 트럼프대통령의 신고립주의 정책 추진이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리더십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략적 기회라고 여김
 - 중국은 트럼프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라는 명분하에 국제통상,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대응에 있어 미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퇴보시키는 것으로 평가

5) 연설통 저, 고상희 역, 『2013년 세계사 불변의 법칙』 (서울: 글항아리, 2014) 참조.

- 미국과 균형적 대국관계를 구축하려는 중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기구와 협정을 중시하며 타협을 통한 실리 확보에 주력할 것이나, 핵심이익 침해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19차 당대회에서 주목할만한 인사로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정치국원 발탁을 들 수 있으며, 대표적 미국통인 양제츠의 선출은 대미관계를 위한 중국의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외교담당당이 정치국원으로 선출된 것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외교분야를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진핑 2기 정권의 의지가 확인된 것으로 분석됨

3. 한중관계

- 19차 당대회 직후 한중 외교부가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함에 따라 양국관계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합의는 지난정부에서 줄속으로 진행된 사드 관련 정책결정이 야기한 갈등과 불신을 극복하고 양국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
 - 사드 합의는 중국 지도부가 미국과의 동북아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갈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사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한국이 국익차원에서 적극 호응한 결과임
 -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가 연장되고 10월 24일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2년만에 개최되는 등 긍정적 기류의 연장선상에서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짐
- 시진핑 집권 2기 한반도정책은 지속에 방점을 두면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할 것임
 - 중국은 자국 주도의 질서형성에 유리하도록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는 정책을 구사할 것

- 중국의 대북정책 역시 지속적 측면이 우세할 것이며, 북핵과 북한을 분리한 대화와 제재의 두 트랙 접근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화에 방점을 둔 북핵 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주지 않을 것임

IV 대중 외교전략

- 사드문제의 한계를 넘어 상호이해와 존중에 기반한 '신형 한중관계'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강구해야 함
- 사드 갈등을 교훈으로 양국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해서 현안에 좌우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신형 한중관계를 구축해야 함
 - 사드 문제는 미중간의 갈등이 근본적인 원인인 '구조적 측면'이 있음을 주지, 사드문제와 북핵문제 해결 등을 위한 '한미중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정례화해야 함
- 다차원의 대화 채널로 기존의 양국 정상간 관계를 국민관계로 확장하여 제도화하려는 노력 필요
 - 사드 갈등 과정에서 양국 국민간 상호인식이 상당히 악화된 바, 정상회담과 함께 민간 차원의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재개하여 bottom-up 방식의 양국 관계 재설정 노력도 병행 추진 필요
 - 양적으로 확대되어 온 사회문화적 교류를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체계화할 필요
 - 당 대회 보고에서 시진핑주석은 "각국 정당 및 정치조직과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위원회, 군대, 지방정부, 국민단체 등의 대외교류를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한중간 정당 교류 및 지자체 교류 등도 적극 추진
- 중국 내 정치상황, 평창올림픽 등 내년 초까지 한중관계 개선의 중요한 시기임을 활용

- 중국은 12월 중순 경제공작회의가 있고, 내년 1월에는 1중, 2중 전회가 예정되는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이 예정되어 있음
 - 이번 사드 합의에서 내년 2월 예정된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양국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차기 개최지가 베이징인 점을 한중관계 정상화의 계기로 활용
- 미중관계 하에서 국익에 기반한 ‘이슈별 대응전략’ 마련 필요
- 미중간 경쟁과 갈등이 증폭될수록 우리의 외교적 역할 공간도 축소되는 구조인 바, 북핵문제 해결 등에 있어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적극적 노력
 - 이념보다는 실리에 기반하여 각 이슈별로 국익 차원에서 해결책을 도모하는 전략 추진
 - 한미동맹의 공고화와 함께 한중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외교 안보전략 마련 필요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
 - 현 단계는 시진핑 2기 출범과 북한의 핵개발이 완성되는 시점이 중첩되는 바,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여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음
 - 북중관계 대화 재개를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 필요
- 시진핑 정부의 역점사업인 ‘일대일로 구상’을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하는 방안
- 한중 양국의 ‘국가발전전략’을 북한과의 연계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는 구상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단계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쉽지 않은 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을 위한 여건 조성과 거점 개발 차원에서도 한중 협력은 긴요
 - 북한을 중국의 국익에 유리하게 통제, 유도하기 위해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등 중국의 대북 관여정책이 증가할 가능성 존재
 - 북한의 개혁개방이 한중 양국에 가져오는 정치·경제적 효과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전략대화 등 개최